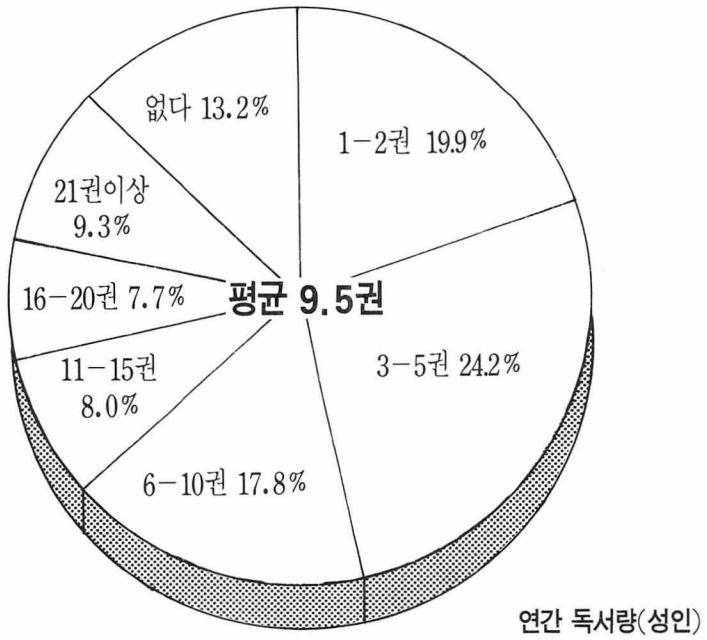
"한권의 책도 읽지 않는 사람 많다"

성인 1년에 9.5권… 국민학생은 7.3권 줄어 독서교육 시급

우리나라 국민들의 연평균 독서량이 일본의 독서량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회가 조사한 제2회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인의 13.2%는 1년 동안 단 한권의 책도 읽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93년만큼도 미치지 못하는 지난해의 독서량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독서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연간 독서량(성인)

지난 1년간 1권 이상의 책을 읽은 사람의 비율(독서율)은 86.8%로 93년 79.3%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나, 아직도 성인의 13.2%는 1년 동안 단 1권의 책도 읽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지난 93년에 11.3권이었던 연평균 독서량도 지난해에는 성인 1인당 9.5권의 책을 읽어 오히려 줄어든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국민학생들은 한학기 동안 32.7권을 읽는다던 93년에 비해 7.3권이나 준 25.4권밖에 읽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국민학생들에 대한 독서교육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회(위원장 정원식)가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 초중고교생 2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회 국민독서실태조사결과 드러났다. 연간 독서량을 월평균으로 환산해보면, 성인의 경우 1인당 한달에 1권의 책도 못읽은 꼴이며, 국민학생 4권, 중학생이 1.5권, 고등학생 1권 정도로 전반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독서량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연평균 독서량이 일본의 독서량(연평균 약 20권)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수치이다.

동네서점 서비스 개선 시급

우리나라 성인들의 서점 이용실태를 살펴본 결과, 3개월 평균 1.3회 정도, 즉 1년에 대략 5회 정도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고 있으며, 주로 이용하는 서점은 '동네서점(36.9%)' '중심가 대형서점(21.3%)' '직장근처 서점(9.4%)' 등으로 주로 집근처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점에 대해 불만사항도 적지 않은데, 그 문제점으로는 '정보제공·상담·안내가 빈약하다'(36.5%)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사고자 하는 책이 없다' '진열이 무질서하고 책 찾기가 어렵다' '전문화가 안되어 있다' '점원의 지식이 빈약하고 불친절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각 지역에 산재한 중소서점의 서비스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경우 지난 한 학기동안 구입한 일반도서는 국민학생 10.5권, 중학생 4.8권, 고등학생 3.7권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적은 반면 참고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많이 구입하고 있다. 한편, 도서구입을 위한 성인·학생 1인당 한달동안의 지출비용은 1만원 가량이고, 도서상품권 이용률은 성인 26.6%, 학생 33.5%로 지난해보다 각각 9%, 12% 정도씩 증가했다.

지난해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의 책에 대한 이미지나, 책을 많이 읽은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책에 대한 이미지로는 '재미·즐거움 감동을 준다'(31.4%), '삶의 지혜·정신수양·마음의 양식이 된다'(20.5%), '읽고 싶다, 호기심이 난다'(12.4%) 등 긍정적 이미지가 대부분인 반면, '교과서·참고서·공부·시험'(8.4%)을 떠올리거나 '지루하다 부담스럽다'(4.9%)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또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물어본 결과, '아는 것이 많고 머리가 좋아 창의적인 일을 할 것'(84.1%),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65.5%)이라는 견해에 동의율이 높은 반면, '허약하고 실천력이 없을 것이다' '융통성이 없고 세상일에 어두워 뒤떨어질 것이다'라는 견해에 동의하는 학생은 9~10% 정도로 소수에 불과했다.

독서목적은 새로운 지식습득

독서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성인·학생 모두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성인의 경우 '교양과 인격형성을 위해서'(27.3%), 학생의 경우 '재미있고 즐거워서'(28.4%)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았다.

반면, '일(학교 공부, 학원·특별지도)이 바빠서 시간이 없다'(성인 57.4%, 학생 39.8%)는 이유로 독서를 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외에 성인학생 모두 '책읽기가 싫고 습관이 안되어 있다'는 응답도 18~20%로 적지 않다.

국민학생 독서량 감소에서 볼 수 있듯이 독서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어릴때부터 가정에서 독서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독서권장 여부를 알아본 결과 6할 이상이 적극적인 편이었지만, 독서를 권장하지 않는 가정도 22.1%에 이르고 있다. 또한 국민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추천하거나 사다주는' 적극적인 부모도 93년 31.7%에서 26.7%로 줄어들었다.

그간 늘어난 도서대여점도 독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조사결과 드러났다. 즉 지난해에 비해 책과 관련된 문화공간이 대체로 약간씩 늘어났으나, 서점·도서관보다는 전문도서대여점·문고 등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특히 지난해 들어 확산되기 시작한 도서대여점이 집주변에 있다는 응답은 50.8%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성인·학생 모두 '교양과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책읽기를 원하면서도 도서대여점에서 대여하는 베스트셀러류의 책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서대여점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서점의 부실한 경영과 공공도서관이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성인들의 공공도서관 이용률(13.6%)이나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률(46.2%)은 지난해에 비해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도서관의 문제점으로 성인들은 '이용절차가 까다롭다'(15.5%), '독서상담 안내가 없다'(14.4%), '읽을 만한 책이 없다'(13.1%)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읽을 만한 책이 없다'(22.2%)고 응답하면서, '못 들어가게 한다'(18.4%)고 지적했다.

여가시간에 독서하는 정책 필요

한편 국민독서 장려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성인은 '정부 언론캠페인 등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21.3%), '도서관 대여점을 활성화해야 한다'(13.4%)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독서지도 등 학교에서 독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21.5%), '재미있고 유익한 책을 출판해야 한다'(15.1%)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독서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전반적으로 93년에 비해 크게 호전되지 않았으나, 반면에 저학력·저소득층의 독서율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가시간에 책을 보거나, 신문·잡지·만화책을 보는 경우가 전체 성인의 21.9% 정도인데 비해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영화관람 등으로 여가를 보내는 경우가 독서를 하는 경우보다 두배 정도 많은 전체성인의 47.4%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초중고교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면 아직까지도 전자출판물의 이용률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성수 기자